

# 광주 역사·민주정신, 무대 위 ‘꽃’으로 피다

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꽃’...오는 28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 성악·합창·무용 등 다양한 장르 협업

광주의 역사와 민주 정신이 국악관현악과 합창, 무용이 어우러진 무대 위 ‘꽃’으로 피어난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상임지휘자 박승희)은 2025년 마지막 정기연주회 ‘꽃’을 오는 28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선보인다.

배우 이원종이 공연 사회를 맡아 작품의 서사를 입체적으로 이끌어지며, ‘꽃’ 무대에 앞서 시 낭송도 선사할 예정이다.

무대는 우리 음악의 전통과 현대를 가로지르는 여섯 개 작품으로 구성된다.

공연의 서막은 최성환 작곡·이석중 편곡의 ‘아리랑 환상곡’이 연다. 1976년 북한에서 작곡돼 전 세계 오케스트라가 즐겨 연주해온 관현악 곡을 국악관현악 편성에 맞게 선보이는 작품이다. 광주시립교향악단 단원 10명이 함께해 국악과 서양 관현악의 호흡을 보여준다.



작곡가 이건용



배우 이원종

이어지는 첼로 협주곡 ‘희문’은 세계문화유산 종묘제례악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광주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 최승욱이 협연자로 나서며 국립국악원 출신 무용수들이 참여해 종묘의 일무를 함께 선보인다. 국악관현악, 첼로, 성악, 무용이 결합된 이 작품은 종묘제례악의 원형을 토대로 전통과 현대를 잇는 무대를 만든다.

다음 무대인 설장구 협주곡 ‘소나기’는 타악그룹 ‘판타지’와 김행덕이 함께하는 무대다. 시원한 비가 쏟아진 뒤 더욱 선명해진 풍경을 설장구와 관현악으로 그려낸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30주년을 기념해 위촉 초연된 ‘불의춤’은 조선대 서영 교수 안무에 무용수 양고은의 춤사위로 완성된다.

판페라 ‘쑈대머리’는 남도 소리와 합창, 국악관현악이 결합된 작품이다. 박승희 지휘자가 작곡하고 황호준이 편곡한 이 곡은 판소리 ‘춘향가’ 옥중 대목을 바탕으로 한다. 일제강점기 국창 임방울이 불러 큰 울림을 줬던 ‘쑈대머리’를 국악관현악, 합창, 성악이 어우러진 형식으로 재구성해 국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다. 광주시립창극단 소리꾼 이서희와 광주시립합창단

성악가들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작곡가 이건용의 위촉 신작 ‘꽃’ 초연이다.

시인 김춘수의 시 ‘꽃’을 모티브로 한 이 작품은 이름을 불러 기억하는 행위를 통해 1980년 광주의 상처가 시간이 흐르며 송고한 차원으로 승화되는 과정을 음악으로 그린다. 메조소프라노, 국악관현악, 합창, 타악이 함께하는 대규모 편성으로 구성된다. 광주시립합창단 전 단원이 참여하며 메조소프라노 김하늘, 마림바 연주자 김지향, 비브라폰 연주자 강나형이 무대에 오른다.

포스터에는 김라원(농성초 3) 양이 직접 그린 양귀비꽃 그림이 사용됐다. 김 양은 지난 6월 객원 지휘자로 시립국악관현악단 무대에 오른 ‘최연소 지휘자’이기도 하다. 포스터 속 붉은 꽃잎은 1980년의 피와 희생을, 노란 꽃술은 도청 앞 분수대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동심의 시선으로 바라본 광주의 기억을 시각적으로 담아냈다.

박승희 상임지휘자는 “광주의 역사와 정신을 음악으로 다시 바라보고, 전통과 현대가 만나만 들어내는 새로운 울림을 시민들께 들려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 김애란 소설 ‘칼자국’, 낭독공연으로 만나다

21일 ACC 예술극장3

김애란 작가의 단편소설 ‘칼자국’은 어머니의 장례를 준비하는 동안 이십여 년간 국숫집을 하며 자신을 키운 어머니의 억척스럽고도 따뜻한 삶을 딸이 돌아보는 이야기다. 제9회 이효석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한 이 소설이 뮤지컬 형식의 낭독공연으로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21일 오후 6시30분 예술극장 극장3에서 ‘ACC 도서낭독공연: 칼자국’을 개최한다.

공연에서는 피아노와 바이올린, 퍼커션의 라이브 연주에 맞춰 배우들의 연기와 노래로 소설 전체를 감상할 수 있다. 공연 후에는 김 작가가 관객과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김 작가는 소설집 ‘침이 고인다’, ‘비행운’, ‘바깥은 여름’, 장편소설 ‘이중 하나는 거짓말’, 산문집 ‘잊기 좋은 이름’ 등을 집필했다.

한국일보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신동엽창작상, 김유정문학상, 프랑스 리나페르쉬상 등 국내외 주요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는 30일까지 ACC 도서관 이벤트홀에서 열리는 도서관화전에서는 정수지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린 ‘칼자국’ 책 속 다양한 원화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이밖에도 ACC는 ‘2025년 문학나눔 작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2일 오후 2시 극장3에서 서운후 시인의 사회로 진은영 시인, 정다연 시인과 함께하는 ‘북콘서트-자아탐색’을 개최한다.

‘느리게 빛나는 문장들’이라는 주제로 3명의 시인이 낭독과 대답을 통해 서로의 작품을 읽으며 독자들에게 문장이 주는 위로의 힘을 전한다. 진은영 시인의 ‘나는 세계와 맞지 않지만’, 정다연 시인의 ‘다정의 온도’, 사회를 맡은 서운후 시인의 ‘나쁘게 눈부시기’는 모두 2025 문학나눔 선정도서로 공연 당일 추첨을 통해 관객에게 증정한다.

낭독공연과 북콘서트 참가 신청은 ACC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로 선착순 150명을 모집한다.

/최명진 기자



##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기원 특별행사

국립광주과학관, 27일까지

국립광주과학관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의 성공을 기원하는 특별행사를 오는 27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국민과 함께 발사 성공을 응원하고, 우리나라 우주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과학관 본관과 온라인에서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본관 1층 중앙홀에는 실제 누리호의 절반 크기(약 23.6m)를 바닥에 구현한 대형 포토존이 설치돼 관람객들이 누리호 위에 서 있는 듯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기획전시실 입구에서는 ▲발사성공 기원 메시지 남기기 ▲우주인 포토존 등이 운영되며, 본관 2층에서는 21일부터 ‘나만의 누리호 만들기’ 체험이 진행된다.

우주항공청 협조로 제작된 ‘우주를 향한 누리호의 4번째 카운트다운’ 영상도 상영된다. 아울러 22일 오후 4시30분에는 큐브위성 개발 과정과 누리호의 달 탐사 계획을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도 열린다. 누리호 5차 발사에 탑재 예정인 큐브위성을 개발한 박설현 조선대 교수와 이택행 한국천문연구원 박사가 강연자로 나선다.

발사 전일부터 당일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누리호’ 검색)을 통한 실시간 응원 이벤트도 진행된다.

/최명진 기자



## AI와 예술, 공존의 시대를 말하다

오늘 나주 아코홀서 상생포럼

‘창작은 인간의 고유한 영역인가, 기술의 또 다른 언어인가.’

지역 문화기관과 예술인이 한자리에 모여 AI 시대의 창작 생태계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광주문화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남문화재단은 1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나주 본관 아코홀에서 ‘AI와 예술, 새로운 창작생태계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광주전남 혁신도시 문화기관 상생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AI와 예술의 창작·활용·저작권

이슈를 중심으로 담론을 확장하고, 광주·전남 문화기관 간 상생협력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다. 광주문화기관협의회, 전남도문화재단협의회, 전남도관광문화예술협의회가 공동 주관해 지역 문화정책 네트워크의 협력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기조강연에는 강장명 작가가 참여한다. 그는 AI와 예술가가 맺게 될 새로운 관계, 예술 생태계의 변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AI 시대 예술가의 미래를 전망한다.

/최명진 기자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국

- |                 |                 |                 |                 |
|-----------------|-----------------|-----------------|-----------------|
| • 중앙지국 222-8171 | • 상무지국 453-2554 | • 유동지국 222-8171 | • 오치지국 261-9461 |
| • 산수지국 224-4188 | • 광천지국 374-2120 | • 운암지국 529-3548 | • 문흥지국 261-9462 |
| • 학운지국 673-6836 | • 진월지국 676-2726 | • 용봉지국 261-1503 | • 일곡지국 573-3200 |
| • 화정지국 372-9140 | • 봉선지국 673-6836 | • 신가지국 954-1420 | • 첨단지국 971-7374 |
| • 금호지국 376-7153 | • 백운지국 673-0123 | • 양산지국 574-3745 | • 치명지국 371-9584 |
| • 풍암지국 603-0311 | • 두암지국 266-1920 | • 하남지국 951-9954 | • 수완지국 955-0451 |
| • 노대지국 674-3581 | • 농성지국 362-4102 | • 운남지국 952-1687 | • 광산지사 944-0993 |

지방  
지사

- |                      |                     |                     |                     |
|----------------------|---------------------|---------------------|---------------------|
| • 목포지사 061)270-8689  | • 나주지사 061)335-0005 | • 보성지사 061)852-6644 | • 무안지사 061)453-3645 |
|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 광양지사 061)793-6800 | • 화순지사 061)373-7795 | • 함평지사 061)322-0882 |
|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 구례지사 061)782-4696 | • 장흥지사 061)863-6800 | • 영광지사 061)353-5133 |
| • 신안지사 061)980-8300  | • 담양지사 061)383-5566 | • 강진지사 061)432-8899 | • 장성지사 061)394-3636 |
| • 순천지사 061)746-1600  | • 곡성지사 061)362-5746 | • 해남지사 061)535-5849 | • 완도지사 061)555-0134 |
| • 여수지사 061)651-6433  | • 고흥지사 061)832-6290 | • 영암지사 061)473-7151 | • 진도지사 061)542-4330 |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